



투기와 투매 양상을 보이는 글로벌 증시

1. 양방향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시장

- 지난 주 글로벌 증시는 13주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 전세계 49개국과 전세계 지수 11개 섹터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주요국에서는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대만과 한국 증시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 주간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은 인도네시아 증시. 그동안 급등했던 키미아 파르마, 인도파르마 등 헬스케어 종목(코로나19 치료제 관련)을 중심으로 급락

2. 곳곳에서 확인되는 개인투자자의 영향력

- 프런티어 시장에 속하는 베트남 증시에서는 보다 큰 변동성이 발생 중. 코로나19 재확산, 호치민거래소 거래중단 사태, 역사적 신고가를 앞둔 차익실현 수요 등이 영향. 특히 증시 내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약 75%)의 투매가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
-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쏠림이 가세하고 있는 사례는 다수 발견. 미국의 게임스탑, AMC 등이 잘 알려진 사례이며, 최근에는 은(silver)가 새로운 타겟이 된 양상. 은 가격은 최근 3거래일 간 +15.9% 상승. 최대 은 광산기업 중 하나인 실버코프(SVM)의 주가 수익률은 +43.8%

3. 과열 진화에 나선 중국 정부

-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 중 하나로 해석되는 이러한 현상은 증시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찰. 미국 2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9.1%, 20년 중국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7% 상승
- 그러나 이러한 호황을 뒷받침할 경제의 회복세는 오히려 둔화되는 양상. 최근 확인된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60.7pt에서 58.7pt로 둔화. 중국의 NBS 제조업 PMI 역시 전월 51.9pt에서 51.3pt로 하락.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한 흐름



주식시장 투자전략

2. 곳곳에서 확인되는 개인투자자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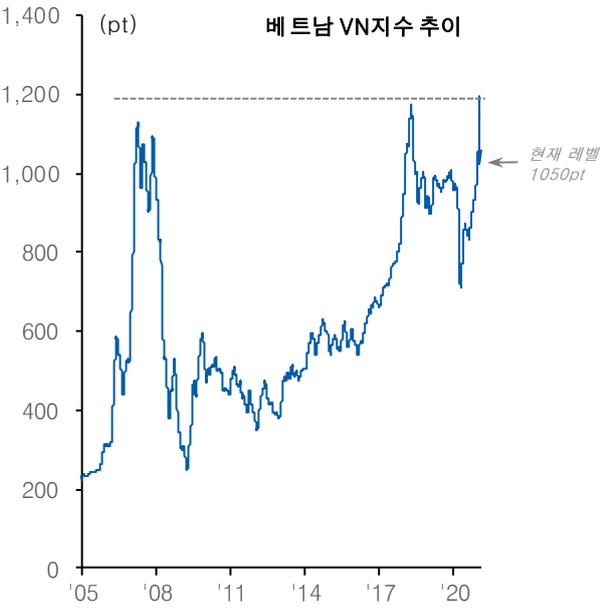
프런티어 시장에 속하는 베트남 증시에서는 보다 큰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다. VN 지수 기준 지난 주 수익률은 -9.4%이며, 28일에는 -6.7% 급락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당일의 하락폭은 약 20년만(01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것이었다.

베트남 증시의 하락에는 코로나19 재확산, 호치민거래소의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거래 중단 사태, 역사적 신고가를 앞둔 차익실현 수요(역사적 신고가 1204.3pt, 최근 고점 1194.2pt)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증시 내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약 75%)의 투매가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쏠림이 가세하고 있는 사례는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게임스탑(1월 수익률 +1625.1%), AMC(+525.5%) 등에서 높은 변동성이 관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자재 시장(silver)으로도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미국 개인투자자 커뮤니티의 새로운 타겟이 된 것으로 알려진 은의 가격은 최근 3거래일 간 +15.9% 수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동기간 최대 은 광산기업 중 하나인 실버코프(SVM)의 주가 수익률은 +43.8%에 달한다.

[차트3] 전 고점에서 개인투자자의 투매가 발생한 베트남 증시. 당일 하락폭은 20년만에 최대 수준



[차트4] 미국 개인투자자 커뮤니티의 새로운 타겟이 된 은. 관련 광산기업의 주가도 급등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자산가격 과열 진화에 나선 중국 정부

과열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풀림은 작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 중 하나인데, 이러한 흐름은 증시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미국 2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9.1%(케이스실러 기준)를 기록 중이며,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중국의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8.7% 상승한 것으로 집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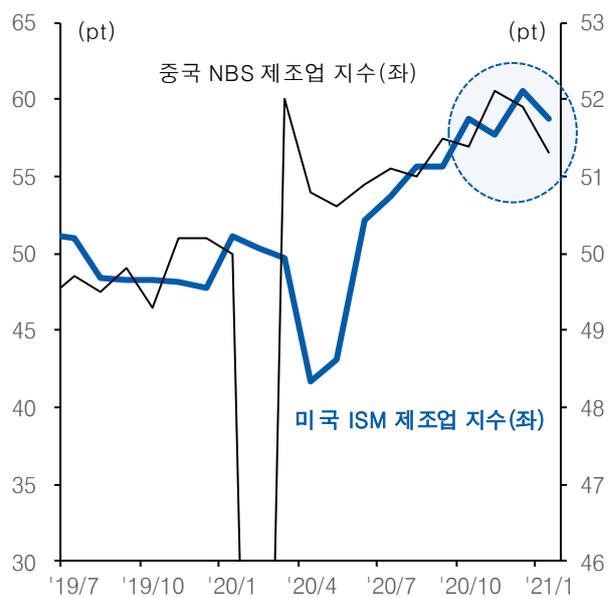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호황을 뒷받침할 경제의 회복세는 최근 오히려 둔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확인된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는 58.7pt 를 기록해 전월 60.7pt 대비 둔화됐고, 중국의 NBS 제조업 PMI 역시 전월 51.9pt 에서 51.3pt 로 하락했다.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한 흐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한발 먼저 자산시장 과열을 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작년말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 관리위원회는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전체 대출 중 부동산 관련 금액을 40% 이하로 제한) 발표했으며, 1일에는 베이징시에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악재로 보이지 않는 조치들이다.

[차트5] 14년 이후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 연준의 유동성 공급 시기와 일치



[차트6]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급반등 했던 경기지표는 최근 모멘텀이 둔화되기 시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